

<양대선거와 여성에 대한 토론과제>

1. 지자체와 대선에서 여성들이 쟁취해내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지자체와 대선에서 여성운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3. 기간 여성계가 정치세력화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떻게 평가되는가?
4. 진보정당에 대한 여성운동의 목표와 이를 실현할 경로는 무엇인가?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해
 - 여성운동의 조직적 결속에 대해
5. 민주노동당의 긍정성과 개선지점
6. 진보정당에 있어서 전여대협의 역할
7. 진보정당에 있어서 전여대협의 과제와 경로

<기지촌 여성운동>

1. 미군범죄운동은 여학생운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학생운동은 미군범죄운동을 해야하는가? 해야 한다면 여학생운동이 해야할 미군범죄운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2. 여학생운동은 왜 기지촌 여성운동을 해야하는가? 기지촌 여성운동은 여학생운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학생운동이 해야할 기지촌 여성운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3. 기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경로는 어떻게 되어야할 것인가?

학회개정운동을 제기하며

(이 자료는 토론을 거친 후 충노선이나 발첨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기간 학회개정운동의 제기배경과 의의

오랜기간동안 대학 내 성적 평가제는 그 상당수에 있어 학생과 교수사이에 서뿐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지역주민과 학생 등 디임한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성폭력이 대상과 공격을 기리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 대학 시기회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 성원들은 모두가 아닌 긍정적인 성폭력 파괴자와 기여자가 될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인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떠한 방

어 기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내의 성폭력은 대학이라는 특수성, 즉 교육과 학생인 학생과 학생인 것으로 대학의 권력과 문제의 공동체는 문제를 겪어야 되도록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해도 대체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학 시기회 내에서 점이 이어졌습니다가 성폭력에 대한 외국인 담당에 의해 사직하고 일회적인 일은 다릅니다. 따라서 시기회 중점인 후원은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자초 그 힘을 갖고 일상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점이 이어집니다가 비슷한 사건이 침복되며 또 다시 원장에게서부터 학생회에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구체되고 현실적인 해석 방식의 부재로 인하여 사건 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실처의 고충을 허지 감수하고 있는 템이 아닙니다.

이에 학내 성적 평가제를 통해 학제적인 학회를 통해 학제적인 문제제기를 담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꽤 대학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동의와 특별히 학우회는 자발적으로 풍부한 의의를 만들 어지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④ 학회개정운동의 전진 과정이 대체로는 데 부족함이 나오았습니다. 즉, 학회 제정이라는 계획을 고려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계가 존재합니다.

⑤ 학회개정운동의 전진 과정이 대체로는 데 부족함이 나오았습니다. 즉, 학회 제정이라는 계획을 고려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계가 존재합니다.

⑥ 학회개정운동을 제기하는 것은 학회의 제정과 정성이 대체로는 모인 구성원들의 토론과 힘으로 통해서 주제로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확장없이 밀어나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회 조장을 만들고 그에 대해 선전하고 학회 조장을 대체 학우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며, 이로 인해やすく 학우들과 함께 활동을 모아가는 것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회개정운동을 시작되는 학교단국회의 협상이나 학회조장을 선전하는 행위는 경구마다 대부분이며, 실제

로 학회제를 대체하는 등의 차이가 특별히 학우회는 자발적으로 풍부한 의의를 만들 어지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⑦ 학회개정운동은 학회개정운동과 일정하게 연관을 갖고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학회개정운동은 학회개정운동의 중심고리였을 때 불구하고, 학회제 정부는 그것으로 진행되고, 성폭력 사건 해결은 또 시안별로 진행되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혹은 한 대중사설에서 한주주의식으로 기획자보를 날 때 성폭력에 대한 각각의 의사내용을 염이내면서

학회 제정에 대한 얘기로 미루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⑧ 학회 제정의 과정에서 어학단위기 전문성이 주도적으로 학회를 제정하는 과정으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학회를 제정하는 데 있어 어학단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학단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해 깊이있게 알고, 학회의 필요성에서부터 학회 내용을 직접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학회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기기까지 깊이있게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학단위에서 제정되었거나 이미 제정인이었던 어학단위에서는 학우들의 인식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나 학교

쪽에서 조작한 학회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과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해제로 된 학회를 제정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학회에서부터 학회 제정의 과정이나 이후 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

하거나 학회제를 대체하는 성폭력 해결 정부를 중심으로 학제적인 학회를 제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성폭력이 깊이있게 이루어진 한계가 있어 학회제를 대체하는 성폭력 해결 정부를 중심으로 학제적인 학회를 제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⑨ 학회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학회개정운동은 이전보다는 이전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어학단위로 펼친 데 신고되었습니다. 이런 성폭력이 깊이있게 이루어진 한계가 있어 학회제를 대체하는 성폭력 해결 정부를 중심으로 학제적인 학회를 제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⑩ 그로 인해 학회가 제정되고 나서 이후 학회개정운동의 계획이 손에 잡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회개정운동을 중심으로 성폭력 학회를 물려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학단위에서 성폭력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해결해오면서 성폭

력을 제정하는 것 이상의 학회개정운동에 대해 그다지 뜻밖인 상파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학회가 제정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회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신경하지 않는 외에 학회개정운동에 대한 이마저 할 풍자임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⑪ 학회개정운동을 중심고리로 한 학회개정운동을 강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학생회 및 학우들의 지원적인 노력, 소모임 등, 그리고 학우들이 학회개정운동으로 스스로 것을 제시하고 싶어하어야 합니다.

학회개정운동을 중심으로 한 학회개정운동의 전국적인 연대를 확보하고 2000년도 전국대학 성폭력 규제 학회 제정 공동체를 꾸려서 학회연을 수용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 학회개정운동의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면서 공동체 활동을 점점 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

3. 학회개정운동의 필요성

⑫ 현재의 학회가 제 구슬을 뜯기 때문입니다.

제정된 성폭력 규제 학회의 대부분은 매우 성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으로는 성폭력 피해의 원칙을 어려운 틀에 면 피해자 보호, 피해자와 증언에 대한 신뢰, 피해자에게 고용을 줄 수밖에 없는 해고증명,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정신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 저버리고 있습니다. 대학 당시의 반성폭력 관점 및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자 저버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된 학회들은 대체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본부에서 출발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학회로 학회개정운동의 과정 자체로 구성을 통한 의의가 반영되지 못한 문장과 학제 구성원들의 성장과 균형의 차이를 전제로 고려하지 못한 문장과 고려하지 못한 문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모든 학교가 성폭력 사건을 학회에 의거하여 풀고 있는지는 알입니다.

⑬ 학회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학회개정운동에서 진! 학회개정운동의 내용과 형식을 다양화해 해야 합니다.

모든 대중운동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학회개정운동에서 있어서 풍랑과 형식을 다양화해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체에 대한 내용을 외워하는데 있어서도 학회를 실행하는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 다양한 틀을 만들어내고 인식을 바꾸는 내용을 형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고민에 집중합시다.

학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할 때 더 넓어나야겠습니다.

⑭ 성폭력 해방에 대해 여학단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각종 성폭력을 중심으로 전개하는데 힘쓰기이며, 학회개정운동을 주도적으로 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대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성폭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고민되면 사건해결책을 금방 찾는 것이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으로 성폭력을 전제화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뿐만 아니라 학회개정의 과정에 대해서도 준비한 으로 학회개정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나야 합니다.

⑮ 반성폭력 운동의 정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과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반성폭력 운동의 정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것이 힘들고, 학회개정운동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전망을 세울 수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풀을 때는 학회가 개정되고 반성폭력 운동이 정체 하거나 침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⑯ 학회개정운동을 비롯한 반성폭력 운동 전진을 전국적인 단체들이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 시대들은 한 대학 안에서 행해졌을 때 그만한 점이 더 둘고 성과는 적은 것을 아쉽히 보다.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부터 학회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운동을 전국적인 의견과 모범으로 만들어가고 더 큰

⑰ 학회개정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 운동 전국적인 단체들이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 시대들은 한 대학 안에서 행해졌을 때 그만한 점이 더 둘고 성과는 적은 것을 아쉽히 보다.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부터 학회개정운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운동을 전국적인 의견과 모범으로 만들어가고 더 큰

4. 학회개정운동의 방향과 원칙

학회개정운동을 중심고리로 한 반성폭력 운동을 더욱 대중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회개정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 운동을 전국적인 의견과 모범으로 만들어가고 더 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갖는 인권의 '값'은 성과 계급과 종교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이제 만평을 보자.

<PHILIPPINE DAILY INQUIRER 1998년 9월 13일자 민정 OPINION>

1998년 5월 27일, 미군의 필리핀 진출을 다시 허용하는 방문군협정(Moving Forces Agreement, VFA)이 필리핀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만평은 적어도 필리핀 국민들에게 VFA 승인 반대 투쟁이 한창일 때 필리핀 일간지에 실린 것이다.

필리핀 민중을 상징하는 남자 아이가 혁무기와 봄운군집장을 들고 있는 미국인을 향해 힘껏 대항하고 있는데, 회장을 짚게 한 여자는(여론여성)을 당시 미국인의 풍부를 짚고 있다. 오란한 복장을 한 여자는 미국 편에 있는 듯 그리고 있다.

이후 문제의 여성이 이 만평을 지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리핀 여성들이 전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군이 다시 진출해서 그들을 상대로 고발의 성을 낸다는 것? 여성들은 전쟁 미국의 주둔을 바라고 있는가? 성을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한 생활이 그들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면? 필리핀에서 미군의 주둔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전진 미군주둔을 원하고 있는가?

이 만평은 현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오로지 그것은 지역적 격차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이 미국인의 성을 낸다는 것, 여성들은 전쟁 미국의 주둔을 바라고 있는가? 성을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생활이 그들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면? 필리핀에서 미군의 주둔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전진 미군주둔을 원하고 있는가?

인신매매 편을 치는 문화에서 이리저리 필리핀 여성들, 아버지미군이 있는 흥한 아이들을 미워하는 시민들은 여성,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목숨을 위험에 처해 차마 그에 맞을 수 없는 여성들, 성폭력과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여성들... 필리핀은 존중하는 것은 윤수만 미군인은 그의 모습은 미군이 좋아 오만하게 칭송을 하고 그의 광부를 불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한가지, 그녀가 예술을 저지르는 선택에 대해서는 '혐오'로 피지지된다. 그녀가 오히려 미국인 편에 기여하지만 것처럼 그려진 것이다.

그녀들의 '자발적 선택'은 과연 진실에 기초하는가? 여성 혐오(misogyny)를 전제로 그런 만행을 보는 순간 필자는 여성에게 지원스럽게 기여하는 일상적 폭력에 공포감이 느껴졌다.

이 만평은 단지 필리핀에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오카나리나 한국에서도 미군기지 터로 해석되고 있다. 기지촌에서 배출을 하거나 미군과 어울리는 여성들을 부르는 한국의 '양방사사'라는 표현과 미군을 남자 친구로 삶을 생으로 가지 주변에 모여드는 여성들을 가리기는 '이에온(?)' 혹은 '여신(?)'과 같은 태액에 있는 단어들이다. 양방사와 이에온(?) 모두 미국을 뜻하는 말이고, '여신(?)'은 여성을 비하시킨 단어다.

- 5 -

미국 군대에 성(性)을 파는 여성은 '미국여제(女帝)'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인족의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일이다. '순결'하지 않은 그들이 민족의 성원조차 주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왜 살을 팔 수 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고 들지 않는다.

'남자 기자촌에 있는 여자를 알아, 그 여자는 이미 그런 것 각오하고 거기까지 간 것 아니야?' 범죄가 한 두 건도 아니라고 말'

'우리도 초등학생이 군현데 성폭력 당했을 때도 오카나리처럼 시고려했을거예요. 그런 해충여성이 당하는 범죄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이 떠나지 않는 거지.'

'해충여성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어른이 입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국회의 원'

'경찰에 신고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건이 실제로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뭔가겠어요. 저기에서 위하는지 어제는 저를 위해서 훌어 보면서 원래 치나였더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와 어울려 다녔으나니 거짓말처럼 부모님으로 봐도 봤겠지 다 합법적이었어요. 온 힘에 괴롭히고 고마워 터되었던 게 제 얼마나 맞았는지 풀려놓고 하지도 않았어요.'

'미군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증언경찰서에서 수사관에게 당한 성폭력을 설명하려'

미군 범죄와 여성은 이야기하면서 기장 크게 부딪쳤는 밖이, 여론여성은 소위 손쉽지 않은 여성에 대한 평가이다. 남녀로 나누어 이중적인 성별이 당연하게 적용되는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명예를 젖어들게 된다. 그들의 상상만을 깊고 깊은 것이 '순결'하지 않은 여성에게 기여하는 뿐이라깊은 차별이다.

기자촌 여성들은 범죄를 당해도 보호를 기자기 같다. 제 발로 그 길을 선택한 것 아니나, (결국 그들이 문제다), 여론여성의 내용과 사회로 주목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차별로만 보면 집에 들어간 여성과 폭력의 '순수한'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인권과 '값'은 당연히 다른 것이다. 원래 저기나 아니나니언이니 여자의 가치를 살피는데 미군과 국적 바꿔가기 그다지 중요하나, 미군으로서 어려운 어여우다 드 문제다...

어둔운 밤길을 혼자 다닌 여자, 짧은 치마의 짙은 회장을 한 여자, 기자촌에 제발로 걸어들어간 여자는 피해를 자초한 여자들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나라는 논리에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다. 미군과 어울렸다는 것 자체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해도 된다는 식으로 살망된다.'

미군 범죄를 '기자촌에 제발로 들어간 여자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은 폭력의 본질을 호소하게 할 뿐 아니라 폭력의 직종에 대한 일상적 기제가 관련되면서 또다른 폭력을 일상화해 버리는 것이다.

오늘 기자촌 예술을 밀집 지역에서는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아무도 순결하지도 않은, 거난한 외국인 여성은 보호해야 할 힘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순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차별화 했던 그 그림과 연결된다. 이중적 성성을 내세우는 기부제의 시선은 험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압박하는 차별의 첫걸음을 재동장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삼은 윌리버 스톤의 영화 '하늘과 달'(Heaven & Earth)

Earth에서 귀대를 일듯 미군병사가 예술성이 아닌 여성을 베트남의 한 가정이 일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장면이 있다. 그들은 미국에 부인이 있기 때문에 성병에 걸린 확률이 높은 예술성을 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미군에게 전쟁을 벌여나면 서 고생에 기기 전에 '추락자' 하니 정도는 만들어야 하니 때문에 깨끗한 베트남 여성은 사라야 한다고 미군들은 강변한다. 자기들의 누이나 어머니, 아내를 그들은 '하늘벌의'의 속죄거리로 사려고 들는 것이다. 그러나 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 폭력은 이미 대상화된 악소국 베트남에서나는 사회적 관계(사회적) 경험에 주목하지 않는 한 변화할 데 이어, 사람의 일상이 있는 문동안에 자리할 수 있다.

미군이 단순히 외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 인권을 터자하고, 그들을 터자하는 과정에 폭력과 개입, 일상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인권 국제에 저항하는 점이 기여세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들은 그들이 으로는 사는 어선 '노란 배'(*Yellow Star*) 라 불렀고, 한국에서는 '색시(色痴)'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과 같은 액션이다.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군사주의의 폭력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깊이 공존하고 있고 뒤섞인 유형으로 외화된다. 따라서 미군 범죄를 '순결한 여성'에 대한 차별로 치부하는 것은 폭력의 원인을 의인화하는 것이다. 인권에 차운 것과 차운 것과 차운 것과 차운 것이다.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폭력의 사용을 응용해 놓아 버린다. 남녀로 나누어 이중적인 성별이 당연하게 적용되는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명예를 젖어들게 된다. 그들의 상상만을 깊고 깊은 것이 '순결'하지 않은 여성에게 기여하는 뿐이라깊은 차별이다.

3. 찾는 말 - 미군 문제를 왜 인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필자는 본문에서 소개한 세 가지 권리들을 통해 미군 주둔의 문제를 국제 관습과 철학, 민족주의 문제로 차운하는 것은 폭력의 문제로 제기해야 할 주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미군주의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개인의 생활을 통한 일상의 문제로 운용하는 것인가라는 인권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이다.

필자는 미군범죄 피해자와의 고통과 상처를 접하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상을 보면서 개인의 삶의 평화가 '국기 인보'라는 험악한 환경에 '인종주의'이라는 미명에 밀려나고자 차운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해도 된다는 식으로 살망된다.

미군 범죄를 '기자촌에 제발로 들어간 여자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은 폭력의 본질을 호소하게 할 뿐 아니라 폭력의 직종에 대한 일상적 기제가 관련되면서 또다른 폭력을 일상화해 버리는 것이다.

필자는 미군범죄 피해자와의 고통과 상처를 접하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상을 보면서 개인의 삶의 평화가 '국기 인보'라는 험악한 환경에 '인종주의'이라는 미명에 밀려나고자 차운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해도 된다는 식으로 살망된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뿐 만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이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가능성의 실현을 차단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미군기지에 대한 폭력으로서는 아예 차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물질을 성립하고 비판하는 통로를 막아서고 있으므로, 딱히 차운 것은 차운하는 것이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인권으로서의 인권을 차운하는 것은 그들이 미군 범죄를 터자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당하는 고통과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